

## 부정부사 ‘別’로 구성된 ‘讓’겸어문의 부정형식\*

요 언 창\*\*

## &lt;目次&gt;

I. 머리말	III. (NP <sub>1</sub> )+‘別’+‘讓’+NP <sub>2</sub> +VP
II. NP <sub>1</sub> +‘讓’+NP <sub>2</sub> +‘別’+VP	IV. 맺음말

## I. 머리말

현대 중국어에는 사역동사 ‘讓’으로 구성된 겸어문이 있는데, 본고는 논의의 편리를 위해 이런 겸어문을 ‘讓’겸어문이라고 부르고, ‘讓’겸어문의 통사구조를 부호로 “NP<sub>1</sub>+‘讓’+NP<sub>2</sub>+VP”로 표시하기로 한다. 부정부사 ‘別’는 ‘讓’겸어문에서 두 가지 위치에 출현할 수 있다. 하나는 ‘讓’ 앞에 출현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VP 앞에 출현하는 경우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a. 你去跟他說說, 讓他別喝了。  
당신이 가서 그에게 그만 마시라고 말해보세요.  
b. 別讓他喝了, 再喝就醉了。  
그가 마시지 못하게 하세요, 더 마시면 취합니다.
- (2) a. 你讓他別着急。  
당신은 그에게 초조해하지 말라고 하세요.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b. 我們快進去吧, 別讓他着急。

그가 초조해하지 않도록 우리 빨리 들어갑시다.

(1-2)는 모두 부정부사 ‘別’로 구성된 ‘讓’겹어문의 부정형식인데, (1a)와 (2a)는 ‘別’가 각각 VP로 쓰인 ‘喝’와 ‘着急’ 앞에 놓여 있고, (1b)와 (2b)는 ‘喝’와 ‘着急’가 VP로 쓰였는데, ‘別’가 각각 ‘讓’의 앞에 놓여 있다. (1-2)의 통사구조를 보면, ‘別’는 VP 앞과 ‘讓’의 앞에 모두 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2)의 ‘別’의 통사적 위치를 바꿀 경우를 보자.

(3) a. \*我去跟他說說, 別讓他喝了。

b. \*讓他別喝了, 再喝就醉了。<sup>1)</sup>

(4) a. \*你別讓他着急。

b. \*我們快進去吧, 讓他別着急。

(3-4)는 각각 (1-2)의 ‘別’의 통사적 위치를 바꾼 경우인데, 모두 성립할 수 없다. (1)과 (3)은 VP가 모두 동사 ‘喝’로 구성된 ‘讓’겹어문인데, 어째서 (1)은 성립하고 (3)은 성립할 수 없을까? (2)와 (4)도 VP가 모두 동사 ‘着急’로 구성된 ‘讓’겹어문인데, 어째서 (2)만 성립하고 (4)는 성립할 수 없을까? 본고의 연구 목적은 ‘讓’겹어문에서 부정부사 ‘別’의 통사적 위치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讓’의 어휘 의미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讓’의 어휘 의미는 곧 부정부사 ‘別’의 통사적 위치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몇몇 학자들은 부정부사 ‘別’로 구성된 ‘讓’겹어문의 부정형식에 대해 논의한 적 있다. 李德津·程美珍<sup>2)</sup>은 부정형식의 겹어문에서 ‘制止(제지하다)’,

1) ‘讓’이 ‘支使’ 의미를 나타낼 경우, ‘讓他別喝了。(그에게 그만 마시라고 하세요.)’는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你去勸勸他, 讓他別喝了。(당신이 가서 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권하세요.)’에 있는 ‘讓’도 ‘支使’ 의미를 나타낸다. (3b)는 ‘讓’이 ‘容許’ 의미를 나타낼 경우,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李德津·程美珍, 《外國人實用漢語語法》, 第4版; 華語教學出版社, 1998, 529-530쪽 참조.

‘勸阻(권하여 그만두게 하다)’를 나타낸다면, 늘 겸어의 술어 앞에 ‘別’, ‘不要’ 등 부정부사를 사용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他們讓我別出院。

그들은 나에게 퇴원하지 말라고 했다.

隊長叫我不要去那兒。

팀장은 나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다.

첫 번째 예문의 ‘別’는 VP로 쓰인 ‘出’의 앞에, 두 번째 예문의 ‘別’도 VP로 쓰인 ‘去’의 앞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1b)와 (2b)의 ‘讓’ 앞에 ‘別’가 사용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項開喜<sup>3)</sup>는 ‘有意—無意’의 측면에서 ‘別+VP’ 격식의 문형 의미를 고찰하였는데, VP의 주체가 제2인자일 경우, 나타내는 것은 有意的 행위이고, VP의 주체가 제3자일 경우, 나타내는 것은 의외의 결과나 사건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비록 아래의 A식과 B식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완전히 같지만, A식 ‘別’구문에서 ‘別’자 뒤에 있는 동사구는 동사의 기본 형식이고, B식 ‘別’구문에서는 동사의 사동 형식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A식 : 別VP了 = 你別VP了

B식 : 別VP了 = 別讓/使得他(她/牠)VP了

A

別跑了, 你能跑到哪裏去?

別走了, 我們都需要你。

別躲了, 這又不是什麼見不得人的事。

B

好好看住他, 別跑了。

這裏許多事都需要他, 一定要留住他, 別走了。

這事只能盯住他, 別躲了。

3) 項開喜, <“制止”與“防止”:“別+VP”格式的句式語義>, 《語言教學與研究》2, 2006. 3, 52쪽 참조.

項開喜는 ‘B의 ‘好好看住他, 別跑了。(달아나지 않도록 그를 잘 지켜봐라.)’에 있는 ‘別跑了’는 ‘別讓他跑了’의 의미로 VP의 주체가 제3자인 ‘他’이고, 의외의 결과나 사건을 나타내고, 동사 ‘跑(달아나다)’의 사동 형식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A의 ‘別’ 뒤에 오는 동사의 기본 형식과 B의 ‘別’ 뒤에 오는 동사의 사동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讓’겸어문에서 ‘別’가 VP 앞에 출현하는 경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

부정부사 ‘別’의 어법 의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呂叔湘<sup>4)</sup>은 ‘別’는 부사로서, ‘勸阻(권하여 그만두게 하다)’나 禁止(금지하다)를 나타내며, 동사나 형용사, 술어로 쓰이는 주술구 앞에 쓰이고, 단독으로도 쓰인다고 서술하고 있다. 馬眞<sup>5)</sup>은 부정부사 ‘別’는 ‘勸阻(권하여 그만두게 하다)(예: 你別喝了, 再喝就醉了。)’를 나타낼 수 있고, ‘禁止(금지하다)(예: 別喝! 有毒!)’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하였고, 또한 청자에게 여의치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유의하라고 일깨워준다는 것을 나타낸다고(예: 別噓了。/別忘了。/別噎了。/別感冒了。/別擠破了。) 서술하고 있다. 項開喜<sup>6)</sup>는 ‘別’구문(‘別+VP’ 격식)의 기본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상대방이 실시하고자 혹은 지속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동작 행위를 ‘勸止(만류하다), 中止(중지하다)’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를 ‘制止(제지하다, 저지하다)(예: 別喝了。)’로 개괄하였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무의식적이고 의외의 결과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를 ‘防止(방지하다)(예: 別喝醉了。)’로 개괄하였다. 본고는 별도로 ‘別’의 어법 의미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이상의 학자들이 제시한 ‘別’의 어법 의미에 대한 견해를 참조하기로 한다.

‘讓’은 ‘支使(명령하다, 일을 시키다)’, ‘容許(허락하다)’, ‘致使(...하게 하다/...하게 만들다)’, ‘願望(소원을 빌다)’, ‘聽任(내버려 두다)’ 등 어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이하에서 편의상 ‘讓’의 어휘 의미를 중국어로 표시한

4)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80.5, 67-68쪽 참조.

5) 馬眞, 《現代漢語虛詞研究方法論》, 商務印書館, 2004.12, 113-114쪽 참조.

6) 項開喜, 앞의 논문 49쪽 참조.

다). 본고는 부정부사 ‘別’의 출현 빈도가 높은 ‘支使’ 의미, ‘容許’ 의미,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讓’겸어문에서의 부정부사 ‘別’의 통사적 위치와 ‘別’로 구성된 ‘讓’겸어문의 부정형식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別’가 ‘讓’겸어문에서 VP 앞에 오는 형식을 “NP<sub>1</sub>+‘讓’+NP<sub>2</sub>+‘別’+VP”로 표기하고, ‘別’가 ‘讓’겸어문에서 ‘讓’ 앞에 오는 형식을 “(NP<sub>1</sub>)+‘別’+‘讓’+NP<sub>2</sub>+VP”<sup>7)</sup>로 표기하기로 한다. ‘讓’겸어문에서 ‘讓’의 어휘 의미는 VP가 나타내는 의미 특징에 따라 확정할 수 있으며, 부정부사 ‘別’의 통사적 위치는 ‘讓’이 나타내는 어휘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 II. NP<sub>1</sub>+‘讓’+NP<sub>2</sub>+‘別’+VP

부정부사 ‘別’는 ‘支使’ 의미를 나타내는 ‘讓’으로 구성된 겸어문에서 VP 앞에 놓여 ‘制止’를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支使’ 의미의 ‘讓’겸어문의 VP로 쓰일 수 있는 어구는 자주동사나 자주형용사 그리고 비자주동사일 수 있다. 물론 ‘支使’ 의미의 ‘讓’겸어문에서 ‘別’ 없이는 비자주동사가 VP에 출현할 수 없다. 먼저 VP가 자주동사나 자주형용사로 구성된 ‘支使’ 의미의 ‘讓’겸어문을 보자.

7) ‘讓’은 피동문으로 쓰여서 동작의 동작자를 이끌 수 있다. 이런 ‘讓’으로 구성된 피동문은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겸어문과 비슷해 보인다. 다음 예문을 보자.

(1) 吃魚時注意, 別讓魚刺給扎了嚙子。

생선을 먹을 때 생선 가시에 목이 찢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上山注意毒蛇, 別讓它咬着。

산에 올라갈 때 독사에 물리지 않도록 유하세요.

(2)의 독사인 ‘牠’는 ‘咬’의 동작자이며, ‘牠’와 ‘咬’는 주술 관계가 존재한다. 겸어문의 겸어와 VP 사이에도 주술 관계가 존재한다. 이 두 구문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讓’이 피동문으로 쓰일 경우 술어동사 앞에 조사 ‘給’를 붙일 수 있고, 겸어문으로 쓰일 경우 VP 앞에 ‘給’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

1. NP<sub>1</sub>+‘讓(‘支使’ 의미)’+NP<sub>2</sub>+‘別’+자주동사/자주형용사

‘讓’은 ‘支使’ 의미를 나타낼 경우, VP는 자주동사나 자주형용사로 구성될 수 있고, ‘別’은 VP의 앞에 놓여 능동적인 동작 행위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性狀을 제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문의 의미는 NP<sub>1</sub>은 NP<sub>2</sub>에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동작 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性狀을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먼저 VP가 자주동사인 경우를 보자.

- (5) a. 我去跟曹師傅講講, 讓他別唱了, 孩子老睡不好覺怎麼行呢?  
내가 가서 曹 사부께 노래를 그만 부르라고 말해보겠다. 아이가 항상 잠을 잘 잘 수 없으면 되겠느냐?  
b. \*我去跟曹師傅講講, 別讓他唱了, 孩子老睡不好覺怎麼行呢?
- (6) a. 他指着那盆茉莉深情地對我說: “這原是一盆半死不活的花, 別人早就讓我別管它了。...”  
그는 그 재스민 꽃을 가리키면서 애정 어린 표정으로 나에게 “이 꽃은 원래 거의 죽어가는 꽃이었고, 남들은 일찍이 나더러 그 꽃을 이제 그만 관리하라고 했었다. ....”고 말했다.  
b. \*他指着那盆茉莉深情地對我說: “這原是一盆半死不活的花, 別人早就別讓我管它了。...”
- (7) a. 辣辣讓老李站好別動。  
辣辣는 老李에게 똑바로 서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b. \*辣辣別讓老李站好動。

(5a-7a)는 ‘讓’은 모두 ‘支使’ 의미를 나타내고 VP로 쓰이는 ‘唱’, ‘管’, ‘動’은 각각 자주동사이며, 그 앞에 부정부사 ‘別’이 있는 ‘讓’접어문의 부정형식이다. (5a)는 내가 가서 曹 사부에게 노래를 이제 그만 부르라고 말해보겠다는 의미이고, (6a)는 남들이 일찍이 나에게 그 죽어가는 재스민 꽃을 이제 그만 관리하라고 당부한 것이고, (7a)의 VP는 연동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VP는 긍정식 자주성 동결식 술보구 ‘站好’이고 뒤의 VP는

‘別’와 자주동사 ‘動’으로 구성된 부정 의미의 수식구이다. (7a)는 辣辣가 老李에게 똑바로 서서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5b-7b)는 ‘別’을 ‘讓’ 앞으로 옮긴 경우인데, 모두 성립할 수 없다.

다음은 ‘讓’은 ‘支使’ 의미이고, VP는 자주형용사이고, ‘別’는 VP로 쓰인 자주형용사 앞에 오는 경우다. 긍정적 의미의 자주형용사는 ‘別太……了’ 격식에 들어가야만 VP로 쓰일 수 있다. 왜냐하면, NP<sub>1</sub>은 NP<sub>2</sub>에게 자주형용사가 나타내는 긍정적 의미의 어떤 성상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 의미의 자주형용사는 그 앞에 ‘別’를 동반해야 VP로 쓰일 수 있다. 그 이유는 NP<sub>1</sub>은 NP<sub>2</sub>에게 자주형용사가 나타내는 부정적 의미의 어떤 性狀을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8) a. 你讓他別太謙虛了。  
당신은 그에게 지나치게 겸손하지 말라고 하세요.  
b. \*你別讓他太謙虛了。
- (9) a. 你讓他別太嚴肅了。  
당신은 그에게 너무 엄숙하지 말라고 하세요.  
b. \*你別讓他太嚴肅了。
- (10) a. 你讓他別猶豫了。  
당신은 그에게 이제 그만 주저하라고 하세요.  
b. \*你別讓他猶豫了。
- (11) a. 你讓他別自滿了。  
당신은 그에게 이제 그만 자만하라고 하세요.  
b. \*你別讓他自滿了。

(8a-9a)에서 VP로 충당한 ‘謙虛’와 ‘嚴肅’는 긍정적 의미의 자주형용사이며, 모두 ‘別太……了’ 격식에 들어갔다. (8a)는 당신은 그에게 지나치게 겸손하지 말라고 하라는 뜻이고, (9a)는 당신은 그에게 지나치게 엄숙하지 말라고 하라는 뜻이다. (10a-11a)는 ‘別’ 뒤에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자

주형용사 ‘猶豫’와 ‘自滿’이 VP로 쓰이는 경우다. (10a)의 의미는 당신은 그에게 이제 그만 주저하라고 하라는 것이고, (11a)의 의미는 당신은 그에게 이제 그만 자만하라고 하라는 것이다. (8b-11b)는 ‘支使’ 의미를 나타내는 ‘讓’겹어문에서 ‘別’가 ‘讓’ 앞에 놓인 경우인데 모두 성립할 수 없다.

## 2. NP<sub>1</sub> + ‘讓(‘支使’ 의미)’ + NP<sub>2</sub> + ‘別’ + 비자주동사

‘支使’ 의미의 ‘讓’겹어문의 VP는 반드시 자주동사, 자주형용사와 자주성 술보구로 구성된다.<sup>8)</sup> 그러나 비자주동사도 그 앞에 부정부사 ‘別’를 동반하면, VP로 쓰일 수 있다. 왜냐하면 NP<sub>1</sub>가 NP<sub>2</sub>에게 타의적이고 무의식적인 동작 행위를 중지하도록 지시나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a. 你讓他別傷心。

당신은 그에게 상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b. \*你別讓(‘支使’ 의미)他傷心。

(13) a. 你讓他別擔憂。

당신은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b. \*你別讓(‘支使’ 의미)他擔憂。

(14) a. 請你們轉告他吧, 讓他別忘了這句老話。

너희들은 그에게 이 옛말을 잊지 말라고 전하세요.

b. \*請你們轉告他吧, 別讓(‘支使’ 의미)他忘了這句老話。<sup>9)</sup>

(12a-14a)는 VP로 쓰인 비자주동사 ‘傷心’, ‘擔憂’, ‘忘’ 앞에 부정부사 ‘別’가 출현하는 ‘讓’겹어문인데 모두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12b)의 ‘你

8) 묘연창, <“讓”겹어문의 V<sub>2</sub>/V<sub>2</sub>C의 의미적 특징>, 《中國文學》 58(2009.2), 289-295쪽 참조.

9) 만일 ‘讓’이 피동 의미를 나타낸다면,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別讓我忘了, 還要給史蒂夫訂房間。(史蒂夫에게 방을 예약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에 있는 ‘讓’은 피동을 나타내는 ‘被’의 의미다. 이 때 ‘忘’ 앞에 조사 ‘給’을 붙여 ‘別讓我給忘了, 還要給史蒂夫訂房間.’과 같이 말할 수 있다.

別讓他傷心。(당신은 그를 상심하게 하지 마세요)은 ‘讓’이 ‘致使’ 의미를 나타낸다면 성립할 수 있다(제3장 제2절 참조). (12a-14a)가 성립한다는 것은 NP<sub>1</sub>이 NP<sub>2</sub>에게 ‘傷心’, ‘擔憂’, ‘忘’과 같은 무의식인 동작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Ⅲ. (NP<sub>1</sub>) + ‘別’ + ‘讓’ + NP<sub>2</sub> + VP

부정부사 ‘別’는 ‘容許’ 의미와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讓’겸어문에서 ‘讓’의 앞에 놓인다. 이 때, ‘別’로 부정한 ‘容許’ 의미의 ‘讓’겸어문의 VP로 충당할 수 있는 어구는 자주동사나 자주성 動趨式 술보구이고, ‘別’로 부정한 ‘致使’ 의미의 ‘讓’겸어문의 VP는 비자주동사나 비자주성 動結式 술보구, 비자주성 動趨式 술보구, 비자주성 ‘동사+得+情態補語’식 술보구로 구성된다.

#### 1. NP<sub>1</sub> + ‘別’ + ‘讓(‘容許’ 의미)’ + NP<sub>2</sub> + 자주동사/자주성 動趨式 술보구

‘讓’은 ‘容許’ 의미를 나타내면, VP는 자주동사이나 자주성 동추식 술보구로 충당되는데,<sup>10)</sup> ‘別’는 ‘讓’ 앞에 놓인다. 전문의 의미는 NP<sub>1</sub>은 NP<sub>2</sub>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동작 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거나 의식적인 동작을 통해 의식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이다.

- (15) a. 別讓旁人拿我的小風琴。  
남들이 내 풍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세요.  
b. \*讓(‘容許’ 의미)旁人別拿我的小風琴。

10) 앞의 논문, 290쪽 참조.

- (16) a. 看好, 別讓他自殺, 先把手槍奪過來!  
 잘 지켜봐라. 그가 자살하지 못하게 하라, 우선 권총을 빼앗아라!  
 b. \*看好, 讓(‘容許’ 의미)他別自殺, 先把手槍奪過來!
- (17) a. 你在中國別讓人叫你這個外號。  
 당신은 중국에서 남들이 당신한테 이 별명을 부르지 못하게 하세요.  
 b. \*你在中國讓(‘容許’ 의미)人別叫你這個外號。
- (18) a. 待在家裏, 別讓別人進來。  
 집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b. \*待在家裏, 讓(‘容許’ 의미)別人別進來。
- (19) a. A: 你別讓他回來!  
 그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그가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마라.  
 B: 我不讓他回來, 他就不回來了?  
 내가 그를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는 돌아오지 않겠는가?  
 b. \*A: 你讓(‘容許’ 의미)他別回來!  
 B: 我不讓他回來, 他就不回來了?

(15a-17a)의 ‘讓’은 ‘容許’ 의미이며, ‘別’은 ‘讓’ 앞에 놓여 ‘制止’를 나타낸다. (15a-17a)는 VP가 각각 자주동사 ‘拿’, ‘自殺’, ‘叫’로 구성되었고, NP2에게 이런 자발적인 동작 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의미다. (15a)는 남들이 내 풍금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이다. (18a-19a)는 VP가 각각 자주성 동추식 술보구 ‘進來’, ‘回來’로 구성되었다. (18)은 집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이다. (15b-19b)는 ‘許容’ 의미의 ‘讓’겸어문에서 ‘別’이 VP 앞에 놓인 경우인데, 모두 성립할 수 없다. ‘別’이 VP 앞에 온다면, ‘讓’은 ‘支使’ 의미를 나타내며, (15b-19b)에 있는 ‘讓’겸어식은 제2장 제1절의 “NP<sub>1</sub>+‘讓’(‘支使’ 의미)+NP<sub>2</sub>+‘別’+자주동사” 형식과 같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讓他別拿我的小風琴.’, ‘讓他別自殺.’, ‘你讓他別叫你這個外號.’, ‘讓他別進來.’, ‘你讓他別回來!’는 ‘讓’이 ‘支使’ 의미를 나타내면 성립하고, ‘讓’이 ‘容許’ 의미를 나타내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NP<sub>1</sub>) + ‘別’ + ‘讓(‘致使’ 의미)’ + NP<sub>2</sub> + 비자주동사/비자주성 술보구

‘讓’겸어문에 있는 VP는 비자주동사나 비자주성 술보구이면, ‘讓’은 ‘致使’ 의미를 나타내고,<sup>11)</sup> ‘別’는 ‘制止’ 의미와 ‘防止’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別’는 ‘讓’의 앞에 놓인다. 이런 문형은 ‘別’로 구성된 순수한 부정형식의 ‘讓’겸어문과 목적 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에서 모면성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절로 충당하는 ‘讓’겸어문(‘別’ + ‘讓(致使 의미)’ + NP<sub>2</sub> + VP) 등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NP<sub>1</sub>이 NP<sub>2</sub>에게 어떤 무의식적인 동작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후자는 NP<sub>2</sub>가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동시에 목적을 나타낸다. 먼저 “NP<sub>1</sub> + ‘別’ + ‘讓(致使 의미)’ + NP<sub>2</sub> + VP”에 들어 있는 VP가 비자주동사로 구성된 순수한 ‘讓’겸어문의 부정형식을 보자.

(20) a. 我不會唱歌, 你別讓我出醜了。

나는 노래를 부를 줄 모르니, 당신은 나를 추태 보이게 만들지 마세요.

b. \*我不會唱歌, 你讓我別出醜了。

(21) a. 該吃飯了, 娘可餓了, 你別讓她老人家傷心啊!

밥 먹어야지, 어머님은 시장하실 거다, 어머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b. \*該吃飯了, 娘可餓了, 你讓她老人家別傷心啊!

(22) a. 是的, 不過, 我們一定別讓任何人知道它。我們必須把它藏起來, 只有在沒人看見時才拿出來用。”

맞아, 다만 우리는 반드시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숨기어야 한다. 보는 사람이 없을 때만 꺼내서 사용하라.

b. \*是的, 不過, 我們一定讓任何人別知道它。我們必須把它藏起來, 只有在沒人看見時才拿出來用。”

11) 같은 논문, 295-302쪽 참조.

(20a-22a)의 ‘讓’은 ‘致使’ 의미를 나타내며, VP로 쓰인 ‘出醜’, ‘傷心’, ‘知道’는 비자주동사다. 이런 동사가 VP로 쓰인 ‘讓’겹어문에 있는 ‘讓’은 ‘致使’ 의미를 나타내며, ‘別’은 NP<sub>2</sub>가 무의식적인 동작 행위를 하도록 조성하는 것을 제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讓’겹어문에서 반드시 ‘讓’ 앞에 놓여야 한다. (20b-22b)는 ‘別’이 VP의 앞에 놓인 경우인데 모두 성립할 수 없다. (21b)에 있는 ‘讓’이 ‘支使’ 의미를 나타낼 경우, ‘你讓她老人家別傷心。(당신은 어머님에게 상심하지 말라고 하세요.)’은 제2장 제2절의 “NP<sub>1</sub>+‘讓(‘支使’ 의미)+NP<sub>2</sub>+‘別’+비자주동사” 형식에 속하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다. (21b)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你讓她老人家別傷心.’은 그 앞에 있는 ‘該吃飯了, 娘可餓了’와 문장으로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別’+‘讓(致使 의미)+NP<sub>2</sub>+비자주동사”가 목적 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의 종속절로 쓰이는 경우를 보자. 이런 경우에 ‘讓’ 앞에 NP<sub>1</sub>은 출현하지 않는다. ‘別’은 ‘防止’라는 어법 의미를 나타내는 동시에 두 절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으며, 주절과 종속절 사이에서 모면성 목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앞절은 주술구로 구성된 주절이고 미연의 사실을 나타낸다. 주절+“‘別’+‘讓(致使 의미)+NP<sub>2</sub>+비자주동사”는 NP<sub>2</sub>가 어떤 무의식적인 동작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23) a. 他的眼睛了, 你應該好好照顧他, 別讓他為難。  
그의 눈은 멀었으니, 당신은 그가 난처하지 않도록 마땅히 그를 잘 보살피야 한다.  
b. \*他的眼睛了, 你應該好好照顧他, 讓他別為難。
- (24) a. 珍惜年華吧, 別讓它悄悄地流失。  
세월이 살며시 흘러가지 않도록 소중히 하세요.  
b. \*珍惜年華吧, 讓它悄悄地別流失。
- (25) a. 她在今後和大介的交往中應該有所注意, 別讓自己在無意之中傷害了他。  
그녀는 자신이 본의 아니게 그를 해치지 않도록 앞으로 大介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약간 주의해야 한다.

- b. \*她在今後和大介的交往中應該有所注意, 讓自己在無意之中別傷害了他。
- (26) a. 你得哄着他點兒, 別讓他再懷疑你。  
당신은 그가 다시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를 좀 달래야 한다.
- b. \*你得哄着他點兒, 讓他別再懷疑你。
- (27) a. 你好好伺候老爺, 別讓他老人家生氣。  
당신은 외할아버지를 화나게 하지 않도록 잘 시중을 들으세요.
- b. \*你好好伺候老爺, 讓他老人家別生氣。
- (28) a. 喂! 千萬保密, 別讓我媽知道哇!  
여보세요! 우리 엄마가 알지 못하게 부디 비밀을 지키세요.
- b. \*喂! 千萬保密, 讓我媽別知道哇!

(23a-28a)는 모두 목적 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이며, ‘別’는 각각 ‘致使’ 의미를 나타내는 ‘讓’의 앞에 놓였고, 이와 함께 구성된 겸어문의 부정형식은 모면성 목적 복문의 종속절로 쓰였으며, 앞절은 미연의 사실을 나타내는 주절이 있다. (23a-28a)의 VP는 모두 비자주동사 ‘爲難’, ‘流失’, ‘傷害’, ‘懷疑’, ‘生氣’, ‘知道’로 구성되었다. (23a)는 세 개의 절로 구성된 다중복문이다. ‘他的眼睛了’와 ‘你應該好好照顧他, 別讓他爲難’ 사이는 첫 번째 단계이며, 인과 관계이다. ‘你應該好好照顧他’와 ‘別讓他爲難’ 사이는 두 번째 단계이며, 목적 관계이다. 전문의 의미는 ‘어머님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당신은 어머님이 난처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이런 결과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어머님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이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23b-28b)는 ‘別’가 VP의 앞에 놓인 경우인데, 모두 성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3b)를 예를 들면, ‘讓他別爲難(그에게 난처하지 말라고 하세요)’은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제2장 제2절의 “NP<sub>1</sub>+讓(‘支使’ 의미)+NP<sub>2</sub>+‘別’+비자주동사” 형식에 속하므로 성립할 수 있다. 인과 복문인 ‘他的眼睛了, 你應該好好照顧他’와 ‘讓他別爲難’은 논리적으로 서로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23b)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은 “別+讓(致使 의미)+NP<sub>2</sub>+비자주성 술보구”가 목적 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의 종속절로 쓰이는 경우를 보자. 주절+“別+讓(致使 의미)+NP<sub>2</sub>+비자주성 술보구”는 NP<sub>2</sub>가 어떤 의식적인 동작 행위 혹은 어떤 무의식적인 동작 행위를 해서, 어떤 여의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29) a. 咱們給他找個吃飯的地方吧, 別讓他也跟着咱們餓死呀!  
 그에게도 우리를 따라서 굶어죽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에게 밥 먹을 곳을 찾아 주자!  
 b. \*咱們給他找個吃飯的地方吧, 讓他也跟着咱們別餓死呀!
- (30) a. 溜出去, 別讓她看見。  
 그녀에게 보이지 않게 몰래 나가세요.  
 b. \*溜出去, 讓她別看見。
- (31) a. 快把我藏起來, 別讓他看到我!  
 그가 나를 보지 못하게 빨리 나를 숨기세요.  
 b. \*快把我藏起來, 讓他別看到我!
- (32) a. 那就快去, 別讓人等急了。  
 남이 기다려서 조금해하지 않도록 빨리 가세요.  
 b. \*那就快去, 讓人別等急了。
- (33) a. 快把窗戶打開, 別讓孩子悶出痧子來。  
 아이가 감감해서 땀띠 나지 않도록 창문을 열어라.  
 b. \*快把窗戶打開, 讓孩子別悶出痧子來。
- (34) a. 老斗, 你去打水, 再揀點兒柴火來。柴要好柴, 別讓你乾娘嗆得咳嗽。  
 老斗, 가서 물을 길어 오고, 땀감을 좀 주어 와라. 당신 수양 어머니가 사례가 들어서 기침나지 않게 땀감은 좋은 땀감여야 한다.  
 b. \*老斗, 你去打水, 再揀點兒柴火來。柴要好柴, 讓你乾娘別嗆得咳嗽。

(29a-34a)는 목적 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이다. (29a-32a)의 ‘餓死, 看見, 看到, 等急’는 비자주성 동결식, (33a)의 ‘悶出來’는 비자주성 동추식, (34a)의 ‘嗆得咳嗽’는 비자주성 ‘동사+得+정태보어’식 술보구이며, 각각

중속절로 쓰인 ‘讓’겸어문의 VP로 쓰이고 있다. (29a)는 ‘그도 우리를 따라서’ 무의식중에 ‘굶다’라는 행위를 해서 ‘죽다’라는 무의식적인 행위를 조성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이런 결과를 모면하기 위해 ‘그에게 밥 먹을 곳을 찾아 주자’라는 이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절로 쓰인 ‘咱們給他找個吃飯的地方吧’와 중속절로 쓰인 ‘別讓他也跟着咱們餓死呀’는 모두 미연의 사실을 나타낸다. ‘別’를 VP 앞으로 옮긴 (29b-34b)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別’는 NP<sub>2</sub>가 의식적인 동작 행위(‘看’, ‘等’)나 무의식적인 동작 행위(‘餓’, ‘悶’, ‘噎’)를 해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여의치 않은 결과(‘見’, ‘到’, ‘死’, ‘急’, ‘出來’, ‘咳嗽’)를 방지할 수는 있어도 제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防止’를 나타내는 ‘別’로 구성된 ‘別(讓)他看見了’, ‘別(讓)他看到了’, ‘別(讓)他餓死了’, ‘別(讓)他等急了’, ‘別(讓)他悶出痧子來了’, ‘別(讓)他噎得咳嗽了’는 모두 성립할 수 있으나, ‘制止’를 나타내는 ‘別’로 구성된 ‘別看見’, ‘別看到’, ‘別餓死’, ‘別等急’, ‘別悶出來’, ‘別噎得咳嗽’는 성립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防止’를 나타내는 ‘別’는 두 절을 연결하는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두 번째 절의 앞에 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NP<sub>1</sub> + ‘別’ + ‘讓(‘支使’ 의미)’ + NP<sub>2</sub> + 자주동사

‘支使’ 의미의 ‘讓’겸어문에서 ‘別’는 ‘讓’ 앞에 출현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VP는 반드시 자주동사(혹은 자주성 동추식 술보구)로 충당해야 한다. 전문의 의미는 NP<sub>1</sub>은 NP<sub>2</sub>에게 의식적인 동작 행위를 하라고 지시나 명령하지 말라는 것을 나타낸다.

- (35) a. 別讓客人來伺候咱們呀, 那像什麼話呢!  
 손님에게 우리를 시중을 들으라고 (지시)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b. \*讓客人別來伺候咱們呀, 那像什麼話呢!

- (36) a. 你別讓我往醫院送飯就是對我的貢獻。  
당신은 나에게 병원으로 밥을 갖다 주라고 (지시)하지 않는 것이  
나에 대한 기여다.  
b. \*你讓我別往醫院送飯就是對我的貢獻。
- (37) a. 你別讓(‘支使’ 의미)他回國。  
당신은 그에게 귀국하라고 (지시)하지 마세요.  
b. 你讓(‘支使’ 의미)他別回國。  
당신은 그에게 귀국하지 말라고 (지시)하세요.

(35a-37a)의 ‘讓’은 ‘支使’ 의미를 나타내며, VP는 각각 자주동사 ‘伺候’, ‘送’, ‘回’로 구성되었으며, ‘別’는 각각 이런 ‘讓’ 앞에 놓여있다. (35a)의 의미는 ‘손님에게 우리를 시중을 들으라고 (지시)하지 마세요, 손님에게 우리를 시중을 들으라고 (지시)한다면 말이 됩니까?’이다. (35b-36b)는 ‘別’를 VP 앞으로 옮긴 경우인데 모두 성립할 수 없다. (35b)의 ‘讓客人別來伺候咱們呀, 那像什麼話呢!’에 있는 ‘那像什麼話呢!’를 빼고 ‘讓客人別來伺候咱們.(손님에게 우리를 시중을 들지 말라고 하세요.)’만 말한다면 이 문장은 제2장 제1절의 “NP<sub>1</sub>+‘讓(‘支使’ 의미)’+NP<sub>2</sub>+‘別’+ 자주동사” 형식과 같으므로 성립할 수 있다. (35b)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讓客人別來伺候咱們呀,(손님에게 우리를 시중을 들지 말라고 하세요.)’와 ‘那像什麼話呢!(그러면 말이 됩니까?)’는 서로 결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那像什麼話呢!(그러면 말이 됩니까?)’는 손님에게 우리를 시중을 들으라고 (지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那像什麼話呢!’는 ‘別讓客人來伺候咱們呀’에 들어 있는 ‘讓’이 ‘支使’ 의미를 나타내고, ‘別’를 ‘讓’의 앞에 놓이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36a)는 ‘你別讓我往醫院送飯’이 주어로 쓰였으며, ‘당신은 나에게 병원으로 밥을 갖다 주라고 (지시)하지 않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의 의미다. (36a)에서 술어로 쓰인 ‘就是對我的貢獻(나에 대한 기여다/나를 도와주는 것이다)’는 ‘당신은 나에게 병원으로 밥을 갖다 주라고 (지시)하지 말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36b)에 있는 주어로 쓰인 ‘你讓我別往醫院送飯’만

말하고, 겸어 ‘我’를 ‘他(제3자)’로 고친다면, ‘你讓他別往醫院送飯’은 ‘당신은 그에게 병원으로 밥을 갖다 주지 말라고 하세요’의 뜻으로 제2장 제1절의 “NP<sub>1</sub>+‘讓(‘支使’ 의미)’+NP<sub>2</sub>+‘別’+자주동사” 형식과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다. (37b)는 ‘別’를 VP 앞으로 옮긴 경우인데, 제2장 제1절의 “NP<sub>1</sub>+‘讓(‘支使’ 의미)’+NP<sub>2</sub>+‘別’+자주동사” 형식과 같으므로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는 (37a)와 다르다. (37b)는 당신은 그에게 귀국하지 말라고 지시하라는 것이다. (37a)는 당신은 그에게 귀국하라고 지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일 (37a)의 ‘讓’이 ‘容許’ 의미를 나타낼 경우, (37a)는 제3장 제1절의 “NP<sub>1</sub>+‘別’+‘讓(‘容許’ 의미)’+NP<sub>2</sub>+자주동사”와 같은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를 귀국하지 못하게 하라’의 의미다. (37a)는 歧義 현상을 제약하는 다른 문구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 IV. 맺음말

이상은 ‘讓’겸어문에서 부정부사 ‘別’의 통사적 위치와 ‘別’로 구성된 ‘讓’겸어문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讓’겸어문에 들어 있는 ‘讓’이 나타내는 어휘 의미에 따라 ‘支使’ 의미의 ‘讓’겸어문과 ‘容許’ 의미의 ‘讓’겸어문 그리고 ‘致使’ 의미의 ‘讓’겸어문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支使’ 의미의 ‘讓’겸어문에서 ‘別’는 VP 앞과 뒤에 모두 올 수 있으며, ‘制止’를 나타낸다. ‘容許’ 의미의 ‘讓’겸어문에서 ‘別’는 ‘讓’ 앞에 놓여 ‘制止’를 나타낸다. ‘致使’ 의미의 순수한 ‘讓’겸어문에서 ‘別’는 ‘讓’ 앞에 놓여 ‘制止’를 나타내고, 목적 관계를 나타낸 복문(주절+“‘別’+‘讓’+NP<sub>2</sub>+VP”)에서 ‘別’는 ‘讓’ 앞에 놓여 ‘防止’를 나타내고, 동시에 목적을 나타낸다.

“NP<sub>1</sub>+‘讓(‘支使’ 의미)’+NP<sub>2</sub>+‘別’+자주동사/자주형용사/비자주동사”

는 NP<sub>1</sub>은 NP<sub>2</sub>에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동작 행위와 무의식적이고 타의적인 동작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性狀을 드러내지 말라고 명령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NP<sub>1</sub>+‘別’+‘讓’+NP<sub>2</sub>+VP”에 들어 있는 讓은 ‘容許’ 의미나 ‘致使’ 의미 혹은 ‘支使’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NP<sub>1</sub>+‘別’+‘讓(容許 의미)’+NP<sub>2</sub>+자주동사/자주성 동추식 술보구”는 NP<sub>1</sub>은 NP<sub>2</sub>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동작 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거나 NP<sub>2</sub>가 의식적인 동작을 통해 의식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을 나타낸다.

“NP<sub>1</sub>+‘別’+‘讓(致使 의미)’+NP<sub>2</sub>+비자주동사”는 NP<sub>1</sub>은 NP<sub>2</sub>가 무의식적이고 타의적인 동작 행위를 하도록 조성하지 말라는 것을 나타낸다. 주절+“‘別’+‘讓(致使 의미)’+NP<sub>2</sub>+비자주동사/비자주성 술보구”는 목적 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이며, “‘別’+‘讓(致使 의미)’+NP<sub>2</sub>+비자주동사/비자주성 술보구”는 종속절로서 모면성 목적을 나타내고, 앞절은 주절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문은 NP<sub>2</sub>가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NP<sub>1</sub>+‘別’+‘讓(支使 의미)’+NP<sub>2</sub>+자주동사”는 NP<sub>1</sub>은 NP<sub>2</sub>에게 의식적인 동작 행위를 하라고 지시나 명령하지 말라는 것을 나타낸다.

제2장 제1절의 “NP<sub>1</sub>+‘讓(支使 의미)’+NP<sub>2</sub>+‘別’+자주동사” 형식인 (5a-7a)는 성립하는 반면에 같은 형식으로 쓰인 (35b-36b)는 성립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나, 제3장 제3절의 “NP<sub>1</sub>+‘別’+‘讓(支使 의미)’+NP<sub>2</sub>+자주동사” 형식인 (35a-37a)는 성립하는 반면에 같은 형식으로 쓰인 (5b-7b)는 성립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1980.5.  
朱德熙, 《語法講義》, (北京: 商務印書館), 1982.9.  
李德津·程美珍, 《外國人實用漢語語法》, (第4版; 北京: 華語教學出版社), 1998.  
馬慶株, 《漢語動詞和動詞性結構》,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2.10.  
袁毓林, 《現代漢語祈使句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3.7.  
馬 眞, 《現代漢語虛詞研究方法論》, (北京: 商務印書館), 2004.12.  
王紅旗, <“別V了”的意義是什麼—兼論句子格式意義的概括>, 《漢語學習》 4, 1996.8.  
王紅旗, <動詞的特征與“別V了1”的歧義指數>, 《語文研究》 3, 1999.8.  
彭可君, <副詞“別”在祈使句裏的用法>, 《漢語學習》 2, 1990.4.  
項開喜, <“制止”與“防止”: “別+VP”格式的句式語義>, 《語言教學與研究》 2, 2006.3.  
묘연창, <“讓”과 목적복문>, 《中語中文學》 37, 2005.12.  
\_\_\_\_\_, <“不讓”과 목적복문>, 《中國言語研究》 23, 2006.12.  
\_\_\_\_\_, <“讓”겸어문의 V<sub>2</sub>/V<sub>2</sub>C의 의미적 특징>, 《中國文學》 58, 2009.2.

<中文提要>

否定副詞“別”在“讓”型兼語句中既可以位於“讓”的前邊也可以位於兼語的謂語前邊。本文對由否定副詞“別”構成的“讓”型兼語句的否定形式作了一番分析, 得知否定副詞“別”在“讓”型兼語句中的句法位置是有規律的。否定副詞“別”的句法位置取決於“讓”的詞彙意義, “讓”的詞彙意義取決於VP(兼語的謂語)的語義特征。

1. 否定副詞“別”在“支使”義“讓”型兼語句中表示“制止”，既可以放在“讓”的前邊也可以放在VP(兼語的謂語)前邊，但這兩種句式表達的意義不同。位於VP(兼語的謂語)前邊的句式義是NP<sub>1</sub>(主語)支使NP<sub>2</sub>(兼語)不要做出有意識的動作行爲或無意識的動作行爲，或是不要表現出人自身能夠控制的形狀。位於“讓”的前邊的句式義是NP<sub>1</sub>(主語)不要支使NP<sub>2</sub>(兼語)做出有意識的動作行爲。

2. 否定副詞“別”在“容許”義“讓”型兼語句中表示“制止”，必須要放在“讓”的前邊。句式義是NP<sub>1</sub>(主語)不要容許NP<sub>2</sub>(兼語)做出有意識的動作行爲。

3. 否定副詞“別”在“致使”義“讓”型兼語句中只能位於“讓”的前邊。句式義有兩種：一種是“別”表示“制止”，句式義是NP<sub>1</sub>(主語)不要使得NP<sub>2</sub>(兼語)做出無意識的動作行爲。另一種是“別”既表示“防止”又表示“目的”，位於由“讓”字構成的兼語詞組的前邊，起着關聯作用。句式義是爲了防止NP<sub>2</sub>(兼語)造成不如意的結果，而採取相應的措施。

주제어 : 否定副詞“別”，“支使”義“讓”型兼語句，“容許”義“讓”型兼語句，“致使”義“讓”型兼語句，句法位置